

친환경 장묘법 '수목장' 관심 급증 사찰이 장례문화 선도

경내 임야 효율적 활용 기대... 복지부·산림청 법제화 추진

일본 최초로 수목장(일명 수림장)을 도입한 상운사 주지 치사카 겐보 스님의 '사찰 수목장의 운영 현황과 전망' 주제 강연이 열린 11월 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강연은 '죽음'이란 인기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최근 차세대 장묘법으로 각광받는 수목장에 대한 관심으로 빈 좌석이 거의 없다.

이처럼 화장한 유품을 나무 밑에 매장하는 장례법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목장이 묘지 매장으로 인한 토지잡식과 호화 봉안당 조성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 등 이른바 '묘지대란'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목장을 실시할 경우 산림 보호 효과 역시 거둘 수 있어 수목장이 몇 년 안에 장묘문화의 '트렌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화장 전통을 가진 불교계는 이미 수목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확산을 예고하고 있다. 영전 은혜사와 금산 일불사 등은 사찰 임야에 수목장비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교구본사와 고양 흥국사 등 사찰들도 기존 사찰림에 수목장립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 강동구 교수는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임야를 보유한 사찰을 중심으로 수목장 검토하는 사찰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동국대도 학교 소유 임야를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대학원 장례문화학과는 수목장 실시 계획을 가진 사찰들을 위해 사업 타당성 등 검토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불교계 환경단체들과 산골운동단체들도 수목장 캠페인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 상태에서 치러졌던 수목장에 대한 제도화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장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 수목장 등 자연장시설을 '자연장 시설'로 규정해 합법화시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까지 수목장에 대한 관리규제를 제단법인과 종교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도 내년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사찰 주변 산지를 수목장으로 이용해 할 방침이다. 보전산지내 행위제한이 완화되면 공익용 산지를 수목장립으로 조성하고 사찰 신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도 수목장립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김포 서산시 등도 대규모 수목장 조성한다는 계획을 최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산지보전협회, 장묘문화개혁법국민협의회, 수목장포럼 등은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수목장을 알리고 있다. 명지대 가정의학과, 서울보건대 장례지도학과 등도 한국현실에 맞는 수목장법을 개발하고 있다.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수목장 운동은 불교계가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라며 "사찰 소유림을 적극 활용해 불교계가 묘지와 환경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영전 은혜사는 올 봄부터 경내에 수림장을 운영해 신도들과 타사찰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11월 17일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내외와 함께 불국사를 방문, 주지 종상 스님과 대웅전과 다보탑 등을 둘러보고 법종각에서 타종을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 정상 부부 불국사서 탐돌이·타종 함께 해

노무현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의 참석차 내한한 조지 W 부시 대통령 내외는 11월 17일 오후 2시 불국사를 방문했다. 두 정상 내외가 지하문에 들어서자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이 영접하며 석가탑과 다보탑의 내력에 대해 설명하는 등 사찰을 안내했다. 석가탑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다라니경)이 나왔다고 소개하자, 부시 대통령은 감탄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태고총림 방장에 혜초 스님

30일 선암사서 추대법회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된다.

태고종은 11월 30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4일 제4회 태고종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7세 종정에 추대된 혜초 스님은 10월 25일부터 태고총림 선암사 종정원에 주석해왔다.

혜초 스님은 1932년 경남 진양 출생으로 45년 양택 화상을 은사로 진

주 청곡사에서 득도, 53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 및 해인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화원대학 불교학과에서 수학했으며, 61년 법륜사에서 덕암스님을 법사로 건당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과 제17대 총무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정우·원학 스님 등 '승적 정정'

10월 26일 조계종 총무원의... 징계 확정까지 유효

1998년 조계종 사태 관련 별면 징계자인 원학(前 총무원 문화부장) 정우(구통사 주지) 현소(前 도괴안사 주지) 성문(前 봉은사 주지) 스님의 승적이 '정정'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16일 조계종 총무부장 자승 스님은 "98년 징계사 문제는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서 총무부에서 '승적 정정'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은 원학 스님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 10월 26일 총무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네 스님에 대한 징계 확정 판결 시까지 승적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정행위다.

이와 관련 31대 집행부에서도 2003년 11월 승적을 정정하고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재심사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헌 개정 없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일부 중앙종회의원의 반발에 따라 유보했다.

한편 총무원의 결정에 앞서 총무원장 선거 당시 재판 정권 양 후보측에서 징계자 '사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묵숨 걸고 마음자리 찾자"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결제

불기 2549년 동안거 결제일인 11월 16일 전국 100여개 선원은 일제히 결제법요식을 봉행하고 3개월간

의 결제에 들어갔다. 결제대중들은 15일 저녁부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16일 오전 방장 스님 등에게 결제법어를 청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안거 한철 동안 표현된 언어 이전의 그 본래 마음자리를 묵숨걸고 참으로 간절하게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총총림 수덕사 방장 원당,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등도 각각 법어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9면 남동우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천안제일 아나올

호진 스님 11월 23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그림·조태호

일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공단등

황금등

팔각접등

중 등

팔모조립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